

12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2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자동차株 폭락속 다시 약세 [다우: 8,519.69pt (-0.69%)]	뉴욕증시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22일(현지시간) 약세로 마감했음. 부정적인 기업뉴스가 쏟아진데다 도요타의 영업적자 전망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를 다시 자극했음. 특히 GM의 경우엔 구제자금 지원 댓가로 현 주주들의 권리가 대부분 박탈될 것이란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난주말 22% 이상 급등했던 GM의 주가는 하루만에 21% 이상의 급락세로 돌아섰음.
GM 21% 폭락...포드도 12% 급락	GM과 포드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음. 도요타가 71년만에 영업손실을 예상하면서 자동차시장 수요부진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음.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지난 11월 26년래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GM의 경우엔 크레디트스위스(CS)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하회`로 내린 데다, 12개월 목표주가를 현 주가대비 크게 낮은 1달러로 낮춘 점도 큰 악재가 되었음. 크레디트스위스는 "GM이 구제자금을 받음에 따라 향후 노조와 채권자들이 양보차원에서 향후 100억달러와 240억달러 정도를 희생할 것"이라며 "이에 상응해 현 주주들의 권리가 대부분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오바마 일자리 창출 확대..기업악재에 가려	이날 주식시장에는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도 적지 않았음. 특히 오바마 당선자가 일자리 창출목표를 종전 250만개에서 300만개로 대폭 끌어올릴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지만, 이같은 호재는 기업관련 악재들에게 가려졌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날 알코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위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놓았다고 밝혔음. 수요부진과 알루미늄 가격 하락을 이유로 들었음.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경기부진 우려감 자극 [WTI: \$39.58 (-\$2.45)]	국제유가의 하락세도 경기부진의 바로미터로 해석되었음. 지난주말 만기를 맞이했던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유가(WTI)는 2004년 2월 이래 최저치인 배럴당 33.97달러까지 추락한데 이어, 2월물 가격도 30달러선으로 떨어졌음. 국제유가는 지난 7월중 장중 147달러까지 치솟은 이후 글로벌 경기후퇴가 확산되면서 가격이 급락했음. 특히 지난 9월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하루 42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지만, 유가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음.
‘신용시장 해빙무드’ TED 스프레드 리먼사태 이전으로	신용경색의 척도로 꼽히는 `TED 스프레드`가 지난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짐.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금리를 제로(0~0.25%)로 인하하고, 공격적인 양적완화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신용경색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제목	주요 내용
유럽 증시, 5거래일 연속 하락	중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자동차의 영업적자 소식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면서 23일 유럽 증시는 하락. 5거래일 연속 하락세. 유럽 증시는 뉴욕 증시가 상승 개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후 들어 잠깐 반등해 낙폭을 줄였지만, 도요타 악재로 인한 경기 비관론을 극복하지 못함.
중국 또 금리 인하...석달새 5번째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또다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인하.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석달 사이에 금리를 다섯 차례나 낮춤. 중국 인민은행은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1년 만기 대출금리를 5.58%에서 5.31%로, 예금금리도 2.52%에서 2.25%로 각각 인하했다고 밝힘.
엔 약세..`日 수출 사상 최대폭 급감`	22일(현지시간) 미국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주요국 통화대비 약세. 일본의 지난달 수출이 사상최대폭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에 하향 압력을 가함. 오후 4시8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90.145엔으로 지난 주말대비 0.835엔(0.935%) 상승. 일본 재무성은 이날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2234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완화등 감세 늘어남”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완화, 비과세 확대, R&D 연구인력 세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확대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내년부터 세금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
캠코, 금융사 부실債 더 비싸게 사준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자산을 인수할 때 현행 사후정산방식 대신 확정매매방식을 도입할 예정. 확정매매 방식은 담보채권 매입시 매입가격을 확정하는 방식. 경기하강시엔 시간이 흐를수록 담보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에 확정매매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캠코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임.
현대, 기아차, 임금동결 등 비상경영 선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가 세계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업체의 감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22일 조업시간 단축을 비롯해 관리직 임금동결, 혼류생산 등 유연한 생산체제 도입 등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힘. 현대·기아차는 올해 판매실적이 당초 480만대 예상에서 420만대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며 해외판매 재고의 경우 106만대(3.9개월 물량)에 달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